

## UFO와 우주철학의 행방(VI)

— 우주적인 신념과 용기를 일으키는 방법 —

항공우주연구소 편역

### 파동이 좋은 사막 센터

일본 GAP을 창립한지 올해로 꼭 만 34년이 됩니다. 그보다 이전인 1952년 11월 20일에 애덤스키가 미국·캘리포니아 주의 사막 센터에서 우주인과 접촉한 지 올해로 꼭 43년이 됩니다. 애덤스키를 연구하고 있는 어느 미국인이, 사막 센터에 모여서 기념 집회를 개최하고 싶으니까 저에게도 오지 않겠느냐는 권유가 있었지만 바빠서 거절했습니다. 그 분은 제가 아직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에도 최근 애덤스키를 인정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듯 하고,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막 센터에 몇 번이나 가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위산과 사막지대 뿐인 광막한 토지로,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라고 해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같은 아름답고 미세한 모래 바다가 아니라, 딱딱한 지면의 불모지대입니다. 여기저기에 낮은 관목이 있는 정도이며 수목 같은 것은 없고 무슨 특별난 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 번 그곳에 가셨던 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단히 파동이 좋은 장소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 대지로부터 끓어 오르는 대단히 상쾌한 분위기에 의해서 심신이 함께 셋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종의 투명감을 느끼고 자기자신이 내지나 혹은 창공에 동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따라서 금성의 비행접시가 그곳에 착륙한 것도 그러한 파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GAP 회원이신 분은 한번은 사막 센터에 가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 애덤스키를 지지하는 소리가 퍼지다.

애덤스키가 전세계에 다이내마이트를 던진 것 같은 충격적인 체험을 발표한 후로

벌써 40년 이상이 경과했고 이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불신의 시선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옳았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애덤스키를 사기꾼이나 가짜라고 하며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학자 중에서 애덤스키를 인정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혀도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공학 박사 후까노 선생은 몇해 전 「초진상·우주인!」이라고 제목을 붙인 UFO 관계 서적을 냈는데 그 내용은 애덤스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유명한 중에서 애덤스키를 지지하는 분이 의외로 많지만 저는 평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 확증된 달 표면의 우주인 기지

애덤스키가 주장한 것을 극히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태양계의 지구 이외의 혹성에도 인류가 존재할 수 있으며, 게다가 이들은 위대한 문명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지만 거듭 그는, 지구의 위성인 달에도 이미 다른 혹성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기지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을 두 번째 저서인 「우주선의 내부」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애덤스키 전집 제 1권 「제 2 혹성으로 부더의 지구 방문자」에 수록) 그가 이 책을 발표한 것은 1955년의 일이며, 당시로서는 만들어 낸 이야기로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훗날 이것은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 도착해서 애덤스키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달 표면에 거대한 모선이나 비행접시가 있는 광경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지구로 가지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단 이들 사진은 NASA(미 항공 우주국)가 은폐해서 극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만 수년전, 일본의 과학 관계 상담일을 하고 계신 V씨라는 분이 NASA를 방문해서 달표면에 UFO가 있는 사진을 보고 대단히 놀랐으며, 그전까지는 UFO라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그 뒤로는 UFO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끼야마 박사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 V씨는 아끼야마 씨가 아는 분이 며, 이것은 모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과학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은 지식을 갖지 않으면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의 독일 시인인 앵겔스·질레지우스라는 사람은, 「예지는 샘

이다.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힘차게 다시 용솨을 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시인 조지·하버트라는 동시대의 사람은「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없는 자는 진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애덤스키를 통해 다른 혹성에 관한 굉장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기에, 현대 과학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될까?」라고. 그러나 애덤스키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현대과학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태양계에서 인간이 사는 혹성은 지구 뿐이라는 설을 절대로 옳다고 믿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비약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저는 과학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론입니다만 지구인의 정신적 과학적인 면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우리가 직접 우주선을 건조해서 다른 혹성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아, 우리 지구인이란 얼마나 불쌍한 동물인가!」라고 크게 반성하고, 「좀 더 정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큰 발전을 이루도록 거국체제가 아닌 거지구체제로 노력해 나가자」고 일대 각성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일본 막부시대 말에 미국으로부터 도향해 온 페리 함대의 검은 배를 보며, 온 일본이 큰 충격을 받고 「일본이 얼마나 후진국이었던 말인가」라고 깨닫고 노도와 같이 개혁의 기운이 일어났던 것과 비슷합니다. 더구나 이 우주적 각성은 멀지 않은 미래에 실현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의 추측으로는 서기 2020년부터 30년경에, 태양계의 다른 혹성에 대문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구의 강대국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빠르면 2010년 경에도 발표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15년 정도입니다.

### 마이클·콜린즈의 말

사실 강대국 정부는 이미 다른 혹성군에 대문명이 있다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다음 세기로 접어들게 되면 지구 외 문명의 문체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강대국 정부도 더 이상 은폐 할수 없게 되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도 미국은 화성을 향해서 무인 탐사선 머즈·옵저버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93년 8월에 화성에 도착해서 그로부터 일년 동안 화성 주위를 돌면서 지표를 관측하는 것인데 이 탐사기가 무언가 대단히 중대한 결과를 보내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976년 화성탐사선 바이킹을 보내어 화성의 지표에 도착시키고, 화성의 두 곳의 흙을 채취했으나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은 세계의 사람들이 화성은 무인혹성이라고 믿어 버린 것입니다. 일반인은 「과학」이라는 말에 대단히 약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조사된 결과이다」라고 듣기만 하면, 그것을 신의 말처럼 철저히 믿어 버립니다. 정말로 「과학」이라는 말은 신이기도 하며 악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작하고 있는 것은 정부로서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악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과학이 정채되면 인류는 파멸하겠죠. 다시 화성탐사기 바이킹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화성의 흙을 채취한 결과, 생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달 표면에 내려 선 것은 1969년 7월 16일에 케네디 우주센터로부터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즈 세 사람입니다. 콜린즈는 사령선으로 달 상공을 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착륙은 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달 표면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있었으므로 뭔가 이상한 광경을 봤을 지도 모릅니다. 그 때문인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우주인이 지구의 고비사막의 모래와 남극의 얼음만으로 지구에 관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지구에는 인간이 없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것은 화성탐지기가 채취한 흙은, 생물이 전혀 없는 토지의 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다른 장소였다면 생물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주비행사 콜린즈씨는 화성에 생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말투입니다. 거듭 콜린즈씨는 더 중요한 사실을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과학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달이나 화성을 탐사했을 때 사실은 자기자신을 탐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UFO연구란 결국 인간연구이다」라는 저의 이론과 완전히 같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우리는 과학이라는 말에 맹목적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살리기 위해 정신세계의 탐구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지·에덤스키의 우주적인 훌륭한 철학이나 생명과학의 깊은 연구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 사사끼 하찌로씨의 멋진 체험

그렇다면 이제부터 에덤스키 철학의 탐구에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선, 에덤스키의 「초능력 개발법」과 「생명과학」은, 우주의 진리를 말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인간을 정말 우주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칙을 설명

한 책이며 단순한 관념론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애덤스키의 초능력 개발 방법을 실천해서 굉장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GAP내부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일본 GAP발행전문지 「UFO contactee」119호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만, 도쿄에 살고 있는 일본 GAP회원인 사사끼 하찌로씨의 기사로 「나의 초능력 개발 체험과 우주인 여성과의 만남」이라는 대단히 흥미 있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사끼씨는 오랜 세월 동안 애덤스키 철학을 실천하며 조금도 초능력 개발을 위한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한 결과, 오오라 투시력과 텔레파시의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고 있어도 오오라를 통해 우주인(외계인)을 분간할 수 있게끔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몇 번인가 우주인을 보았지만 이쪽에서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9년쯤 전에 도쿄내의 어느 서점에 들렀는데 그곳의 계산담당을 맡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의 오오라가 신장의 3배나 되는 굉장한 오오라였고 더구나 색은 황금색이 주체가 되어 찬연히 빛나는 멋진 현상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보고 이 여성은 우주인이다라고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 뒤로 몇 번이나 그 서점에 들러 봤는데, 그 여성을 보니 역시 똑같이 굉장한 오오라가 보여서 책을 사지 않아도 그 곳에 들르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일견 완전히 일본인의 형상이며 연령은 25·6세로 대단한 미인이고 몸에 걸치고 있는 복장의 센스도 훌륭했으며 언젠가 사사끼씨가 그 가게에 들어가 어떤 책을 찾기 위해 텔레파시로 그 여성에게 「함께 찾아주지 않겠습니까」라는 상념을 보냈더니 그 여성으로부터 「찾아 드리겠습니다」라는 응답이 텔레파시로 되돌아 왔고, 사사끼씨의 옆으로 와서 책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일본인과 똑같은 일본어를 구사했으며, 특히 사사끼씨가 가게에 들어갈 때면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등, 대단히 친절하고 밝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사끼씨 이외의 손님에게는 그다지 정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사사끼씨가 그 가게에 들어갔다 나와 부근의 다방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 그 여성에게 텔레파시로 「지금 바쁘지 않으시면, 여기까지 오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송신했더니, 얼마 안 있어 그 여성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사끼씨가 앉아 있는 테이블 앞으로 오지 않고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어서 자세히 보니, 왠지 모르게 슬픈 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얼마 안 있어 다른 혹성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니, 그 여성으로부터 「저는 돌아갑니다」라는 텔레파시가 왔다고 합니다. 어디 혹성인가는 묻지 않았지만 금성의

어렵듯한 광경이 떠올라서 이 사람은 금성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은 사사끼씨 체험의 일례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주인을 보았다는 예가 있는데, 사사끼씨는 대단히 겸허한 분으로 자신의 입으로 득의양양해서 체험담을 말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의 이야기를 원고로 써서 받는 데 몇 번 씩이나 재촉을 해서 겨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인에 관한 것은 가능한 한 타인에게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 말하면 우주인들이 귀찮아한다」는 생각을 관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지킨다는 확고한 정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대의 비결은 끊임없는 연습

이상의 사사끼씨의 예로 봐서 더없이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초능력을 개발하려면 철저히 매일 같이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사끼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끊임없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ESP카드나 트럼프, 그 밖의 재료나 기구를 항상 옆에 두고 틈만 있으면 그것을 집어들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ESP카드를 GAP에서 배부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어 두고, 지하철 안이라든지 점심 후의 휴식시간 등 여가가 있을 때에 꺼내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연습법은 그 카드에 설명서가 첨부되어 그것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연습할 때에는 카드를 잘 펴놓고 뒷면을 자기 앞으로 하고 앞쪽 도형을 투시하는 연습을 합니다. 사사끼씨도 이것을 자주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ESP카드 정도로 초능력이 생길까라고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지않는 것보다는 실행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연습과 같습니다. 운전능력은 선천적으로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핸들을 잡고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전연습을 계속하면 반드시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몸에는 순화작용이라고 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일에 익숙해지는 작용입니다. 초능력 개발도 그 「익숙해 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이 익숙해지는데 지능의 좋고 나쁨이 없는 것처럼 초능력의 개발에는 지능은 관계가 없습니다. 매일 바보처럼 계속하다 보면 이제까지 잠자고 있던 특수한 기능이 조금씩 잠을 깨고 초능력적인 힘이 나오게 됩니다. 이 힘은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나오는 것이어서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영구히 나오지 않습니다.

## 소원을 실현시키는 방법

다음으로 GAP에서는 예전부터 소원을 실현시키기 위한 마술적 방법으로서 「기적의 말」과 「기적의 이미지」라고 하는 방법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말(Miracle Word)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란 뜻이며, 기적의 이미지(Miracle Image)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미지」란 뜻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 영어 대신에 「반복상념」, 「이미지법」이라고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바람직한 일을 실현시키고 싶으면 그 일이 이미 실현된 상태를 이미지로서 확실히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일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생각지도 않을 때에 그 바람직한 일이 전부 실현되어 몹시 놀라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 A씨 부부의 기적

이에 관한 실례는 지금까지 많이 소개해 왔는데 또하나 굉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본 GAP 회원으로 오사카에 A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의 부인인 도시꼬씨가 에반즈 증후군이라는 난치병에 걸려서 거의 가망이 없을 정도의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게 상담을 해 왔는데, 저도 어떻게든지 살아나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반복상념과 이미지법을 응용하도록 여러 가지 조언을 했고, 우주인에게도 송신을 해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아끼야마씨에게도 부탁해서 원격사념을 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A씨와 부인이 「반드시 낫는다!」라고 하는 반복상념과 이미 다 나은 상태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리는 것을 강렬하게 실천한 결과, 비록 도중에 나왔다 악화되었다 하는 상태가 반복되기는 했지만 결국 완치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굉장한 실례입니다. 게다가 입원 중 UFO가 출현하기도 하고 혹은 서양글자 「E」라고 하는 글자가 하늘에 역방향으로 나오기도 했으며 이상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E라고 하는 문자의 역방향이 무엇을 뜻하는가 라는 문 의가 있어서, 아마도 Evans 증후군의 머리글자의 역방향이니까 병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현상은 언젠가 A씨가 부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병실 앞에 있었더니, 맞은 편에서 누군가 사람 목소리가 들렸고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 뿐으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는 그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

어서 이것은 「아끼야마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 소리는 쪽 이동해서 부인의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도쿄에 있는 제가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A씨를 불러내어 「조금 전 또 아끼야마씨와 만나서 부인의 병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했는데 반드시 좋아질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격려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A씨는 대단히 놀랐고, 조금 전 두 남자의 목소리는 아끼야마씨와 구보다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한 소리였다고 알아채고 크게 감동했다고 A씨에게 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영혼이 오사카까지 갔을 리는 없습니다. 저나 아끼야마씨나 모두 그날은 쪽 도쿄에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A씨는 바로 병실로 들어가서 혼수상태에 있는 부인의 컷전에 입을 대고, 「방금 이런 신기하고 굉장한 일이 있었소」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으니까 남편의 이야기는 당연히 들리지 않았을 테지만 훌륭한 GAP회원인 A씨니까 부인의 내부의식에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지요. 아마도 부인은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투병 이야기는 수년간에 걸쳐 애덤스키 철학을 맹렬히 응용한 결과, 기적적으로 완쾌되었다고 하는 멋진 실화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A씨 부부의 아름다운 부부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무릇 이래야 하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감동했던 것이지요. 싸움을 일삼는 부부와는 전혀 다릅니다. 1992년 5월에 오사카 지부 대회가 있어서 저는 다음날 관광 때에 부인 도시코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데, 2년 전에 병중에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건강해 졌고 아름다워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 빅스터의 식물실험

조금 전의 사사끼씨의 벨레파시로 보나, A씨의 애덤스키 철학의 응용으로 난치병을 극복하셨던 실례로 보나, 어쨌든 인간의 상념이 파동이 되어 공간을 전파한다고 하는 현상은 틀림없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뿐이 아니라 식물도 인간의 상념파동을 감수해서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실험이 옛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유명한 일입니다만, 1960년대에 뉴욕에 크리브 빅스터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검사관 양성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란 정식으로서는 폴리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탐지기는 전극을 인간의 피부에 장치해서, 범죄자에게 죄상을 자백하게 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신경활동은 전기적인 것이고, 마



음이 동요되면 발한 활동이 증대되어 피부 표면의 전기저항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생체전류가 증대되므로 그 원리를 응용해서 인간의 몸에 전극을 장치함으로써 전류의 강약에 따라 갈바노미터라고 불리는 계기바늘이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죈자가 신문 당할 때에 숨기고 있던 비밀을 갑자기 추궁 당하면 마음이 동요되므로 바늘이 크게 흔들려서 거짓말이 탄로 난다고 합니다. 언젠가 벅스터는 문득 식물이 이 기계에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 시험해 보려고 실내에 있던 화분에 심은 열대식물 드라세나라고 하는 나뭇잎에 전극을 장치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실험방법으로써 벅스터는 전극이 장치되어 있는 나뭇잎을 성냥으로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늘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잎을 태울 의도는 없는데, 일부러 태우려는 듯한 거동을 해 보이자 바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 벅스터는 식물을 대상으로 해서 꽤 여러 가지 실험을 시행한 결과, 식물은 인간의 상념감정을 확실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각국에서도 뒤를 쫓아 같은 실험이 시행되고 있으며 벅스터효과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벅스터는 식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실험재료를 이용해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력은 세포수준에서 정지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것은 분자, 원자, 그 위에 원자의 구성요소까지 내려갈 지도 모른다. 이제까지 인습적으로 생명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모든 종류의 물질은 다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애덤스키의 「생명과학」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원자핵 안에 스파크(활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애덤스키의 설을 훌륭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모든 무생물에도 의식이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만, 이것도 뒷받침 받고 있는 셈이 됩니다. 어쨌든 벅스터는 ESP(초감각적 지각력)까지도 깊이 연구해서 텔레파시 분야까지 탐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크게 감명 했던 바입니다. 이상 이야기한 클러브 벅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작사라는 출판사에서 발간한 「식물의 신비성」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책의 번역서인데 과학의 첨단을 걷는 위대한 선구자들의 연구에 관해서 기술되어 있는 훌륭한 책입니다.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물을 재배하고 계신 분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공적인 말

어쨌든 인간뿐 아니라 식물까지도 의식을 갖고 있으며, 파동을 감지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봐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본 GAP을 비과학적이라든지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시대를 훨씬 앞서가는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또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만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비판 따위에 좌우되지 않고 애덤스키 철학의 실천과 그 업적을 기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에도 실패하는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보고 배우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 애덤스키 전집 제1권 「제2혹성으로부터의 지구방문자」에 나오는 우주인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들은 먼 옛날, 신념의 힘, 희망의 힘,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 힘을 배웠습니다. 어제 잃어버린 목표는 내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만큼 용기를 주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제가 번역한 것이지만 스스로도 멋진 말이라고 생각되며 제자신도 언제나 이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본래의 영문도 물론 알고 있지만 역시 일본어로 외치는 쪽이 즉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외칠 때에는 「나는 신념의 힘, 희망의 힘,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 힘으로 가득차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반복 상념 하면 되는데 이때 대우주상념법의 자세로 시행하면 한층 더 좋겠지요.

### 대우주 상념법의 실습법

이제부터 대우주 상념법을 실습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종교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자신 내부의 우주적인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상념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실은 이 간단한 방법에 최고의 의미와 효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 방법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멋진 효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병이 드신 분은 이 상념법을 시행하면서 자신의 전신에 우주의 생명에너지가 가득차 있다고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면 점차 병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무언가의 소원을 실현시키고 싶은 분은, 이 상념법을 시행하면서 「무엇 무엇이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상념을 하고, 동시에 이미 실현된 상태의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강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라는 바가 점점 가까이 끌어 당겨져 옵니다. 강력한 상념을 발하는 것이므로 그것에 감응해서 목적물이 다가오든지 또는 자신이 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별로 각별한 소원이 없는 사람은, 대우주 상념법을 시행하면서 마음으로 늘 생각하는 반복상념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신념의 힘, 희망의 힘,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 힘으로 가득차 있다!」라고 외치면 좋겠지요. 그렇게 하면 대단

히 자신에 찬 인간이 될 것이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어 산뜻한 심신과 함께 상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 됩니다. 나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운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우주 상념법을 실습해 봅시다. 이전에는 대우주 명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습시다만, 명상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대우주 상념법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어서서 등줄기를 곧게 펴니다. 단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양손을 앞쪽의 아랫배 근처에서 깎지를 낀다. 그리고 숨을 코로 조금씩 들이마시면서 그 숨을 배 아래로 떨어뜨려서 배를 조금 불룩해지게 합니다. 다 불룩해졌을 때에는 호흡을 멈추고, 동시에 「지금 전신에 대우주의 생명 에너지와 예지가 가득차 있다. 나는 절대로 완전!, 절대로 건강!, 무한한 능력이 나올 것이다!」와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외치든지, 또는 그와 같은 느낌을 일으킵니다. 숨을 멈추고 있는 시간은 5210초, 그리고 외치는 것이 끝나면, 조용히 숨을 입으로부터 내쉬기 시작합니다. 내설 때에는 「감시합니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을 반복하여 시행하면서 약 10분내지 30분 동안 계속합니다. 정좌한다든지 특수하게 앉는다든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상관없지만, 체력이 있는 사람은 일어서서 똑바로 서 있는 편이 좋겠조. 왜냐하면, 이 직립에 의해서, 자신의 몸이 대우주의 초거대한 기둥이 되어 있다라는 웅대한 느낌을 일으키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난치병에 걸리신 분은 뒤로 젖혀 위를 보고 누운 채로 아랫배로 숨을 내려보였을 때에 대우주의 생명에너지가 환부로 집중되어 환부를 날려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씩 계속합니다. 건강한 분은 초능력을 개발하려고 생각한다면, 연습도 물론이지만, 이 대우주 상념법으로 시행하면서, 자신이 텔레파시, 원격투시, 오오라 투시 등의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미지를 강렬하게 그려야 합니다. 「이것은 기공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릅니다. 저는 기공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자신이 고안해 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우주 상념법을 하고 있으며, 인체로부터 굉장한 오오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확증되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의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은 이 간단한 방법 속에 진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아끼야마 박사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끼야마씨는 일본에서는 초능력 자로서 손꼽히는 분이며,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 아끼야마씨가 중국에서 대초능력자인 초광(超光)이라는 선생과 만났을 때 역시 아랫배에 생명에너지로서의 광구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것을 몸 전체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간단한 방법에 위대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복잡한 체조나 운동을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운동이나 방법을 시행하는 편이 실감이 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애덤스키는 마인드(마음)와 우주의식(생명 에너지와 예지)과의 일체화를 도모하는데는, 특수한 방법은 필요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특수한 방법이란 전후(戰後)캘리포니아 주에서 난립했던 괴상한 신흥종교 무리의 특수한 방법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의 대우주상념법을 실습해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람이 적잖습니다. 나뻐던 위장이 점차 좋아졌던가, 기분이 상쾌해져서 좋은 일만이 일어난다든가, 텔레파시능력이 나타났던가 등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일상습관으로 계속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며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 텔레파시, 원격투시, 오오라 투시 등의 소위 초능력 개발은 그 나름대로의 연습을 계속해야 하며 그런 연습과 병행해서 이 대우주 상념법을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기상때, 전차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또는 일하는 사이사이, 취침전 등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 대우주 상념법은 자신이 대우주 안에 동화되어 일체화되기 위한 느낌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가장 우주적인 상념법입니다.

### 「우주 창조주」의 인식

세상에는 다수의 정신수양 단체나 구도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으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대우주와 인간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우주의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 있는 지도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며, 그와 같은 것을 부정하고 있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점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인간을 키우고 있는 것은 혹성이며 태양이며 은하계이고, 그 은하계는 무수히 창조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은 광대한 우주의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인간은 우주에 싸여 있으며, 우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가거나 혹은 니체가 말한 것처럼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이라면, 왜 인간은 이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학자로서 우주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생명에너지와 예지 이외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없

다면 이렇게 까지 정연하고 합리적인 대우주가 창조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한 결과로서 「맹목적인 의지」에 의해 생성된 우주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면 인간에게는 이상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 「우주의 의식」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에너지이며 예지이고 대우주 만물을 살리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는 무한한 기쁨과 희망이 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맹목적인 의사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마인드(마음)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맹목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의식을 깨닫고 마음을 그것과 일체화시킨다면 무한한 지식과 힘이 솟아 날 것입니다. 지구인은 아직 그 「우주의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애덤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의식」은 「우주 창조주」의 별명입니다. 따라서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을 갖지 않는 한 인간은 언제까지나 맹목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전 피점촉자 M씨와 만났을 때 「당신이 점촉하고 있는 우주인은 창조주에 관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주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지금에 우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창조주에 관해 상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이른바 「신」과 같은 존재이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라고.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라는 것을 (초월한 의사(意思))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파시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인간은 지구상의 어디에 있어도 지구전체의 의식을 텔레파시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인간은 우주에 편재하는 온갖 생명체의 의식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에 편재하는 온갖 생명체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어느 곳으로 가든 창조주의 자아가 존재하고 있다고 우주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끝까지 가든 어떤 위험한 혹성에 가든 어느 세계에나 우주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의식』과 같은 의미이므로, 애덤스키와 같은 이론입니다. 자주 『우주의 의식』이라는 말이 들립시다만, 이것은 애덤스키가 말한 『우주의 의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주의 의식』은 우주에 대해 인간 쪽에서 일으키는 의식이지만, 『우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전체를 의식체로 본 우주 쪽의 의식이고, 말하자면 창조주 또는 신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의』라는 글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므로, 그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지구인은 시각이나 청각 등에 좌우되어 마인드만으로 살고 있지만, 우주인은 자기 내부에 모든 능력을 몸에 갖추고 있고, 고도의 정신적 과학적인 문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